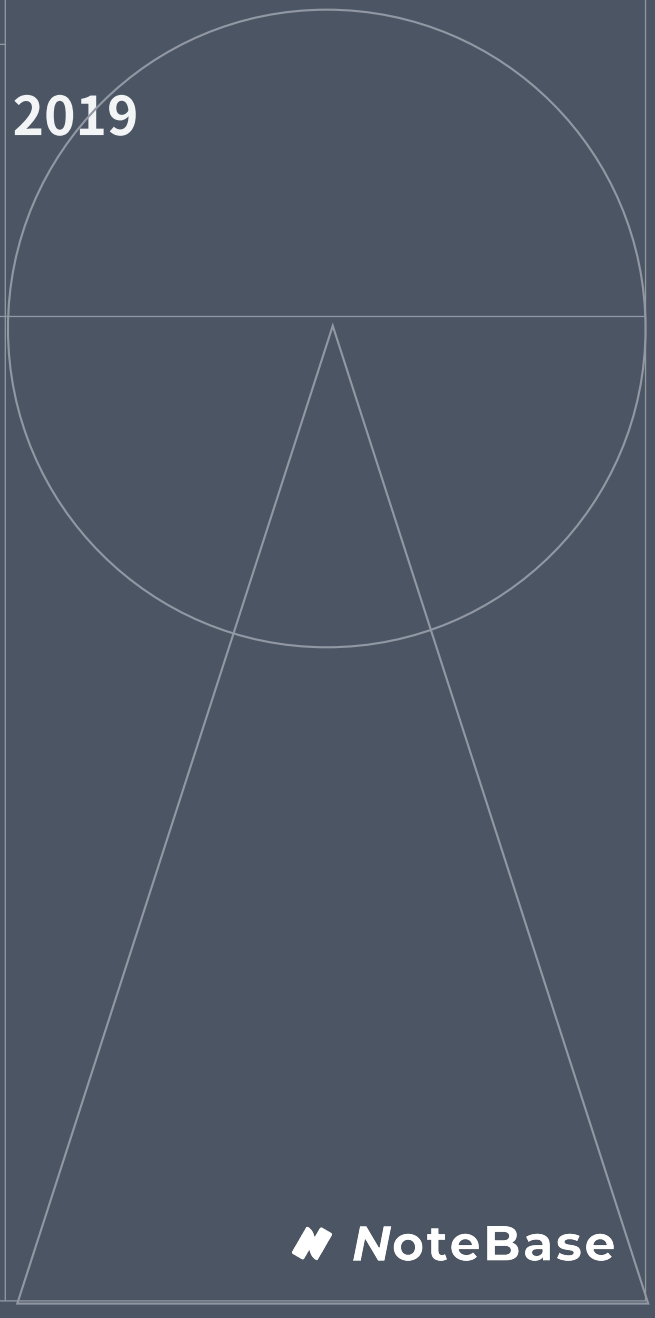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9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9

문 1. 다음 제시된 작품을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한 것은?

㉠ 군(君)은 어비여,
신(臣)은 ᄃᆞᄉᆞ샬 어ᅀᅵ여,
민(民)온 얼ᄒᆞᆫ 아ᄒᆡ고 ᄒᆞ샬디
민(民)이 ᄃᆞ술 알고다.

㉡ 원슌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ᄉᆞ륙(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딘한림(陳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튱긔딕칙(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댱(試場)ㅅ 경(景)긔 엇더ᄒᆞ니잇고.

㉢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一百番) 곳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향ᄒᆞᆫ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의 갈래와 창작 시기를 연결하여 신라 → 고려 전기 → 고려 말 → 조선 전기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ㄱ → ㄴ → ㄹ → ㄷ

1. ㄱ 「안민가」 — 신라 경덕왕 때 충담사가 지은 향가이다.
2. ㄴ 「한림별곡」 — 고려 고종 때 한림의 문인들이 지은 경기체가이다.
3. ㄹ 「단심가」 — 고려 말 정몽주가 지은 시조이다.
4. ㄷ 「용비어천가」 — 조선 세종 때 지은 악장이다.

왜 이 순서: 향가인 「안민가」가 가장 앞서고, 고려 시대 작품인 「한림별곡」과 「단심가」 중에서는 고려 말의 「단심가」가 뒤에 오며, 조선 전기의 「용비어천가」가 마지막에 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ㄷ 「용비어천가」를 ㄹ 「단심가」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단심가」는 고려 말, 「용비어천가」는 조선 전기 작품이므로 올바르게는 ㄱ-ㄴ-ㄹ-ㄷ이다.
② O — ㄱ 「안민가」(신라) → ㄴ 「한림별곡」(고려 고종 때) → ㄹ 「단심가」(고려 말) → ㄷ 「용비어천가」(조선 세종 때)의 순서가 맞다.
③ X — ㄴ 「한림별곡」을 ㄱ 「안민가」보다 앞에 두고, ㄷ 「용비어천가」를 ㄹ 「단심가」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안민가」는 신라, 「한림별곡」은 고려 작품이며, 「단심가」는 고려 말, 「용비어천가」는 조선 전기 작품이므로 올바르게는 ㄱ-ㄴ-ㄹ-ㄷ이다.
④ X — ㄴ 「한림별곡」을 ㄱ 「안민가」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안민가」는 신라, 「한림별곡」은 고려 작품이므로 올바르게는 ㄱ-ㄴ-ㄹ-ㄷ이다.

오답 포인트

ㄹ과 ㄷ은 모두 옛말 표기가 나타나 시대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ㄹ 「단심가」는 고려 말의 시조이고, ㄷ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의 악장이므로 반드시 ㄹ이 ㄷ보다 앞선다. 또한 향가 ㄱ 「안민가」는 고려 시대 경기체가 ㄴ 「한림별곡」보다 앞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일부가 제시되면 먼저 대표 구절로 작품명을 확인하고, 갈래와 시대를 연결한다. 이 문항에서는 향가·신라 → 경기체가·고려 → 시조·고려 말 → 악장·조선 전기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민가(신라) → 한림별곡(고려) → 단심가(고려 말) → 용비어천가(조선 전기)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잘못 적은 것은?

>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쓰고 있다. 그러나 한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難澁하고 혹은 통하지 않아 鄙陋하고 無稽할 뿐만 아니라, 말을 적는 데 이르러서는 만에 하나도 제대로 疏通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계해(癸亥: 세종 25년, 1443년)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한 예의를 들어 보이시었는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① 難澁하고: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고
② 鄙陋하고: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며 더럽고
③ 無稽할: 근거가 없을
④ 疏通하지: 잘 통하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한자어 '難澁하다, 鄙陋하다, 無稽하다, 疏通하다'의 정확한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잘못 적은 것'을 묻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難澁하다(난삽하다): 글이나 말의 내용·표현이 어렵고 까다로워 이해하기 어렵다.
鄙陋하다(비루하다):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無稽하다(무계하다): 근거가 없다.
疏通하다(소통하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難澁하고'를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고'로 풀이한 부분이 틀렸다. '難澁하다'는 글이나 말의 내용·표현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내용이나 표현이 어렵고 까다로워 이해하기 어렵고'이다.
② O — '鄙陋하다'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알맞다.
③ O — '無稽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므로 '근거가 없을'이라는 풀이가 알맞다.
④ O — '疏通하다'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이므로 '잘 통하지'라는 풀이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어렵고'만 보고 사람의 부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난삽하다'의 어려움은 요청의 수락 여부가 아니라 글이나 말의 내용·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의 뜻을 주변 문맥과 연결해 판단한다. ‘말을 적는 데’라는 문맥에서 ‘난삽하다’는 글이나 표현의 이해가 어렵다는 뜻이며, 발문의 ‘잘못’을 확인한 뒤 사전적 의미와 어긋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난삽은 이해가 어려움, 비루는 너절하고 더러움, 무계는 근거 없음, 소통은 막힘없이 통함이다.

NoteBase

문 3.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맞는 단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그라나다(Grenada), 에콰도르(Ecuador)
② 에티오피아(Ethiopia), 포르투칼(Portugal)
③ 싱가포르(Singapore), 베네주엘라(Venezuela)
④ 아이티(Haïti), 아랍 에미리트(Arab Emirates)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영어 철자에 끌려 임의로 적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나라 이름의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원어의 발음을 국어의 음운과 표기 체계에 맞추어 적는 방식이다. 이 문항에서는 그레나다,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랍 에미리트가 올바른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그라나다'가 틀렸다. Grenada의 올바른 표기는 '그레나다'이므로 '그레나다, 에콰도르'로 고쳐야 한다.
② X — '포르투칼'이 틀렸다. Portugal의 올바른 표기는 '포르투갈'이므로 '에티오피아, 포르투갈'로 고쳐야 한다.
③ X — '베네주엘라'가 틀렸다. Venezuela의 올바른 표기는 '베네수엘라'이므로 '싱가포르, 베네수엘라'로 고쳐야 한다.
④ O — Haiti는 '아이티', Arab Emirates는 '아랍 에미리트'로 적으므로 두 표기가 모두 맞다.

오답 포인트

'그라나다', '포르투칼', '베네주엘라'는 원어 철자나 익숙한 소리에 끌려 쓰기 쉬운 표기이다. 특히 자음 하나나 모음 하나만 다른 표기를 놓치면 두 단어 중 하나가 틀린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두 단어를 따로 표준 표기와 대조하고, 한 단어라도 틀리면 그 선지 전체를 X로 판단한다. 비슷하게 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레나다·포르투갈·베네수엘라'라는 표준 표기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그레나다는 '레', 포르투갈은 '갈', 베네수엘라는 '수'로 기억한다. 아이티와 아랍 에미리트는 모두 맞는 표기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 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 재원도 부남도 지나 낙월도 흐르면서
> 한 오천 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보았네
>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 못나고 뒤엉긴 보리밭 길 보았네
> 보았네 보았네 멸치 덤장 산마이 그물 너머
>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 나올
> 서러운 우리나라 앉은뱅이 섬들 보았네
>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 웬 설움 이리 많은지
>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
> – 곽재구, 「전장포 아리랑」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며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쓰인 비유·설의·반복의 효과와 작품의 중심 정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비유적 표현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의미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설의적 표현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식으로 뜻과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작품에서는 섬들을 '눈물방울'로 형상화하고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라고 물어, 섬 자체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난을 겪은 우리나라의 슬픔과 나라 사랑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섬들을 '눈물방울'로, 섬의 모습을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로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섬이 많은 풍경과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② O — '재원도', '부남도', '낙월도'와 같은 실제 지명을 열거하여 전장포 앞바다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장감을 높인다.
③ X — 틀린 부분은 '자연물에 대한 연민의 정'이다.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은 섬 자체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난을 겪어 온 우리나라의 역사적 슬픔과 나라 사랑을 강조한다.
올바르게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적 아픔과 나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이다.
④ O — '보았네'라는 동일한 종결 표현을 여러 행에서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까지는 맞지만, 그 표현이 드러내는 정서의 대상을 '자연물'로 잘못 한정한다. 작품의 '눈물', '한 오천 년', '슬픈 우리나라 사랑'은 중심 정서가 국토와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의 명칭만 확인하지 않고 그 표현이 무엇을 형상화하며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는지까지 본다. 특히 설의적 표현 앞뒤의 시어를 연결하여 정서의 실제 대상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섬은 눈물방울로 형상화되고, 반복되는 '보았네'는 운율을 만들며, 슬픔과 사랑의 대상은 우리나라이다.

NoteBase

문 5. <보기>를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닦다 동
(1) 때, 먼지, 녹 따위의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르다.
(2) 거죽의 물기를 훔치다.

	피동사	사동사
닦다(1)	㉠ 닦이다	㉡ 닦이다
닦다(2)	㉢ 닦이다	㉣ 닦이다

① ㉠: 얼룩이 깨끗이 닦인 유리창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② ㉡: 때밀이에게 아이의 몸을 닦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③ ㉢: 그가 손으로 코를 문지르자 흐르던 콧물이 닦였다.
④ ㉣: 식탁 위 우유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형태가 같은 '닦이다'가 문장에서 피동사로 쓰였는지 사동사로 쓰였는지, 그리고 기본 동사 '닦다'의 두 뜻 가운데 어느 뜻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동사 '닦이다'는 주어가 남에게 닦는 행위를 당한다는 뜻이고, 사동사 '닦이다'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닦게 한다는 뜻이다.
'닦다(1)'은 때·먼지 등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르는 것이고, '닦다(2)'는 거죽의 물기를 훔치는 것이다.
'닦이다'는 피동과 사동의 형태가 같으므로 형태만 보지 않고 문장의 주어, 실제 행위자, 행위의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유리창’은 누군가의 행위로 얼룩이 없어져 깨끗해진 대상이다. 때나 얼룩을 없애려고 거죽을 문지르는 ‘닦다(1)’의 피동사 ㉠에 해당한다.
② O — 문장의 주어는 ‘때밀이’에게 아이의 몸을 닦게 한다. 때를 없애기 위해 몸을 문지르게 한 것이므로 ‘닦다(1)’의 사동사 ㉡에 해당한다.
③ O — ‘콧물’은 그가 코를 문지르는 과정에서 훔쳐져 없어진 대상이다. 거죽의 물기를 훔치는 ‘닦다(2)’의 피동사 ㉢에 해당한다.
④ X — ‘우유’는 누군가에게 닦는 일을 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식탁에서 닦여 없어지는 대상이므로, ‘닦이지 않았다’는 ‘닦다(2)’의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사 ㉣이 아니라 피동사 ㉢의 예이다. ㉣의 예로 고치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식탁 위의 우유를 닦였다.’처럼 시키는 주체와 실제 행위자가 드러나야 한다.

오답 포인트

피동사와 사동사가 모두 ‘닦이다’로 나타나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④의 ‘닦이지 않았다’를 ‘누군가에게 닦게 하지 않았다’는 사동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문장의 주어인 ‘우유’는 닦이는 대상이므로 피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지, 다른 존재에게 행위를 시키는 주체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때·먼지 등을 없애는 문맥이면 ‘닦다(1)’, 물기를 훔치는 문맥이면 ‘닦다(2)’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닦이다’는 형태보다 문장 성분이 중요하다. 주어가 닦이는 대상이면 피동, 주어가 남에게 닦게 하면 사동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 전장(田庄) ·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千金)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중략)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땋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서울 안에 명기(名妓)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의 우림아(羽林兒), 각 전(殿)의 별감(別監),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雲心)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거문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上坐)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꼽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 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北髻)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 박지원, 「광문자전」 -

① '광문'은 남녀평등 의식을 갖고 있다.
② '광문'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③ '운심'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시한다.
④ '운심'은 고고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익살과 기지가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한 인물의 특성을 다른 인물에게 잘못 연결한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의 직접 설명뿐 아니라 인물의 말, 행동, 다른 인물의 반응을 통해 드러난다. 광문은 남녀의 본성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며,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운심의 호응을 이끌어 낸다. 운심은 광문의 초라한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행동에 호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광문은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남녀의 본성을 같은 기준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O — 서울의 명기들도 광문의 성원을 받아야 이름값을 인정받았다는 서술에서 광문이 사람의 재능과 진가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③ O — 운심은 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 못생긴 외모의 광문을 겉모습만으로 배척하지 않고 그의 노래와 행동에 호응하여 칼춤을 춘다. 따라서 외모보다 그 사람의 내면적 매력과 진가를 중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운심은 고고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익살과 기지가 있다'이다. 운심이 처음에 일부러 늑장을 부린 행동만으로 고고한 성격을 단정할 수 없고, 우스꽝스러운 차림과 행동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운심의 칼춤을 이끌어 낸 익살과 기지는 광문의 특성이다. 올바르게는 '광문은 익살과 기지로 운심의 호응을 이끌어 내며, 운심은 광문의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칼춤으로 호응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운심이 처음에 선뜻 춤추지 않은 태도만 보고 '고고하다'고 확대 해석하게 하고, 이어지는 광문의 익살스러운 행동까지 운심의 성격으로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인물의 행동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격을 묻는 선지는 근거가 되는 말이나 행동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선지의 평가어가 본문에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살피고, 다른 인물의 특성을 옮겨 붙였거나 한 행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경우를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광문은 안목·익살·기지, 운심은 외양을 넘어 진가를 알아보는 호응의 인물이다.

NoteBase

문 7.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 편지는 나에게 잊혀진 지 오래다.
②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7명이다.
③ 그는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④ 그분의 선행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았는지, 문장 성분과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중 피동은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가 붙은 피동사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다시 결합한 표현이다. 같은 피동 의미가 겹치므로 하나의 피동 표현만 쓰는 것이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잊혀진'은 피동 접사 '-히-'가 들어간 '잊히다'에 '-어지다'가 다시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잊혀진'이 틀린 표현이며, '그 편지는 나에게 잊힌 지 오래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후보는'이 주어이고 '7명이다'가 그 수를 밝히는 서술어이며, '모두'도 전체 후보를 가리키므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③ O
'그는'이 주어이고 '큰 파문을 일으켰다'가 서술어이며, '학계에'는 파문이 미친 범위를 나타내므로 의미와 호응이 자연스럽다.

④ O
'선행을 본보기로 삼다'는 '선행'을 대상으로 하여 '본보기로 여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목적어 '선행을'과 서술어 '삼아야 한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잊혀진'은 일상에서 자주 쓰여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히-'와 '-어지다'가 피동 의미를 중복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여지다, 잊혀지다, 쓰여지다’처럼 피동 접사가 붙은 말 뒤에 ‘-어지다’가 겹쳤는지 먼저 확인하고, 하나의 피동 표현으로 줄여도 뜻이 같으면 이중 피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잊혀진’이 아니라 ‘잊힌’이다. 피동 접사와 ‘-어지다’는 겹쳐 쓰지 않는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어느 기업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치자. 이때 1명의 주주가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한 사람의 원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이것이 집단 소송제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시민의 권리 찾기 운동이 꽃을 피웠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
> 피해자의 숫자는 많으나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클 때 특히 집단 소송제가 절실해진다. 집단 소송제는 같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한목소리로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밟고 소송비용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무엇보다 분산된 사회적 권리를 더욱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공장 가동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자.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과 그 피해를 밝히자면 엄청난 경비가 들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소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못 낼 것이다. 주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가 작아 보일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작은 환경적 권리를 집단 소송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① 집단 소송제는 196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② 집단 소송제는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권리를 찾아줄 수 있다.
③ 집단 소송제를 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체 소송비용이 줄어든다.
④ 집단 소송은 다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집단이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집단 소송제의 기원, 방식,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집단 소송제는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한목소리로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여러 피해자가 절차를 함께 밟고 비용을 분담하므로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작은 권리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196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이다. 글에서는 집단 소송제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이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하므로,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글은 집단 소송제가 '무엇보다 분산된 사회적 권리를 더욱 많이 보호'하고, 각각 흩어진 작은 환경적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전체 소송비용이 줄어든다'이다. 글에서는 여러 사람이 절차를 한꺼번에 밟고 소송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재판에 필요한 전체 소송비용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소송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다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집단'이다. 글에서는 '같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한목소리로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므로,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집단'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제도의 시작 지역인 미국과 도입 지역인 유럽을 뒤바꾼 선지이고, ④는 '같은 피해'를 '다른 피해'로 바꾼 선지이다. 글의 핵심어와 선지의 주체·지역·범위를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도의 기원, 구성 주체, 운영 방식, 효과를 나누어 글의 표현과 선지를 대조한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이 도입',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 '절차의 공동 진행과 비용 분담', '분산된 작은 권리의 보호'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집단 소송제는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단일화하여 절차와 비용을 나누고, 흩어진 작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조(一朝) 낭군(郎君) 이별(離別) 후에 소식(消息)조차 돈절(頓絶)하야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山)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六觀大師) 성진(聖眞)이는
석교상(石橋上)에서 팔선녀(八仙女) 다리고 희롱(戱弄)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屛風)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둥덩 치고
짜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여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꾀요 울거든 오랴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서 황하수(黃河水) 되고 날란 죽어서 도대선(都大船)이 되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둥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겨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데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③ 한시, 소설 등 다른 작품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화자의 정서와 다른 이질적인 후렴구를 통해 흥을 돋우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에 나타난 과장된 상황, 감정 이입, 다른 작품의 인용, 후렴구의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감정 이입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이나 대상에 옮겨 그 대상도 같은 감정을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연물이 인물의 행동을 가로막는 조건으로만 제시되었다면 감정 이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작품은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연이어 제시하고, 다른 작품의 구절과 장면 및 흥겨운 후렴구를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개가 짖어 못 오거나, 물이 깊고 산이 높아 못 오거나,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가야 오는 상황처럼 임이 오기 어려운 까닭을 불가능에 가깝게 과장하여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드러낸다.

② X — 틀린 부분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이다. 개, 물, 산, 바람, 달 등은 화자의 감정을 부여받은 대상이 아니라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나 임이 오기를 바라는 상황을 구성하는 소재이다. 올바르게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이 오지 못하는 장애 상황과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추월이 양명휘하니'와 같은 한시투의 구절을 끌어오고, 육관 대사·성진·팔선녀가 등장하는 「구운몽」의 장면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④ O — '이 아해야 말 듣소', '지어자 좋을시고'와 같은 반복적 후렴구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애절한 정서와 달리 흥겹고 유희적인 느낌을 더하여 작품의 흥을 돋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자연물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감정 이입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자연물의 등장만으로는 감정 이입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선지는 작품 속 소재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고 그 소재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까지 대조한다. 자연물이 슬퍼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처럼 표현되면 감정 이입이고, 단지 사건의 배경·장애물·소망의 조건으로 쓰이면 감정 이입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자연물 등장과 감정 이입은 다르다. 감정 이입은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 옮겨져야 성립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 ㉠: 기르다 ㉡: 먹히다
② ㉠: 비우다 ㉡: 먹었다
③ ㉠: 정답다 ㉡: 귀엽다
④ ㉠: 앳되다 ㉡: 드높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간과 어근을 구분하고, 접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두 형태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를 제외한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접사가 없는 단일어는 대체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만,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 용언은 어간에 접사까지 포함되므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르다'는 어간 '기르-'와 어근 '기르-'가 일치한다. '먹히다'는 어근 '먹-'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말로, 어간은 '먹히-'이므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 ㉠과 ㉡에 알맞다.
② X — '비우다'는 어근 '비-'에 접미사 '-우-'가 붙어 어간이 '비우-'가 되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먹었다'는 '먹-'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어간과 어근이 모두 '먹-'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 '먹었다', ㉡ '비우다'이다.
③ X — '정답다'는 어근 '정-'에 접미사 '-답-'이 붙어 어간이 '정답-'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귀엽다'는 어간과 어근이 모두 '귀엽-'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 '귀엽다', ㉡ '정답다'이다.
④ X — '앳되다'는 어근 '앳-'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 어간이 '앳되-'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드높다'도 어근 '높-'에 접두사 '드-'가 붙어 어간이 '드높-'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앳되다'를 ㉠에 둔 것이 틀렸으며, ㉠에는 '기르다'처럼 어간과 어근이 같은 말이 와야 한다.

오답 포인트

'먹었다'의 '-었-'을 접사로 착각하기 쉽다. '-었-'은 새 단어를 만드는 접사가 아니라 활용할 때 붙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어간 '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먹히다'의 '-히-'와 '비우다'의 '-우-'는 접미사이므로 어간에는 포함되지만 어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형에서 어미 '-다'를 떼어 어간을 찾고, 그 안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제외하여 어근을 찾는다. 두 형태가 같으면 ㉠, 접사가 어간에 남아 서로 다르면 ㉡으로 판단한다. 활용형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모두 제외한 뒤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어간은 활용의 중심, 어근은 뜻의 중심이다. 파생 접사는 어간에는 들어가지만 어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다음 (가)~(라)를 문맥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그러나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인간적 시도들은 그것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만이 가지는 순간적 아름다움의 광채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기억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며, 사유가 완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사유의 엄밀성을 이상화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상상은 위대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 때문에 표현은 아름다워진다.

(나) 기억과 사유, 상상과 표현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독특한 능력들의 목록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 네 가지 능력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기억은 수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고 사유는 불안하다. 상상은 기억과 사유의 한계를 확장하지만 유한한 경험의 울타리를 아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형식과 내용도 시간성에 종속된다.

(다) 책은 인간이 가진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봉사하는 가장 유효한 매체이다.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000년, 지금 같은 형태의 종이 인쇄 책의 역사는 600년에 불과하다. 자연 선택이 사냥과 채집 등 인간 종의 생존에 필요한 다른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가 책을 쓰고 책을 읽는 기능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사유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러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낸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① (나)-(가)-(다)-(라)　② (나)-(다)-(라)-(가)
③ (다)-(나)-(라)-(가)　④ (다)-(라)-(나)-(가)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시어와 접속어가 가리키는 앞 문장의 내용을 찾아 문단 사이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나) → (가) → (다) → (라)
1. (나): 기억·사유·상상·표현이라는 네 능력을 제시하고 각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한계를 설명한다.
2. (가): '그러나'로 앞의 한계를 받아,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인간의 시도들이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밝힌다.
3. (다): 앞에서 제시한 네 능력의 유지·심화·개발에 책이 유용한 매체임을 설명하고, 책을 쓰고 읽는 능력을 '덤'이라고 표현한다.
4. (라): '그런데 이 '덤'이'로 (다)의 마지막 표현을 직접 이어받아 책 읽기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인가: (가)의 '그러나'는 (나)의 능력별 한계를 전제로 하고, (다)의 '네 가지 능력'은 앞 문단에서 그 목록이 제시되어야 하며, (라)의 '이 '덤''은 (다)의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나)에서 네 능력과 그 한계를 제시한 뒤 (가)가 그 한계의 역설적 가치를 설명한다. 이어 (다)가 네 능력을 발전시키는 책을 소개하고, (라)가 (다)의 '덤'을 받아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문단 간 연결이 자연스럽다.

② X — (나) 다음에 (다)를 두면, (나)의 한계를 '그러나'로 전환하여 인간적 시도의 가치를 설명하는 (가)가 글의 맨 뒤로 밀린다. 특히 (다)와 (라)는 '덤'으로 직접 연결되지만, 그 뒤의 (가)는 책 읽기 논의를 다시 네 능력의 일반론으로 되돌려 글의 흐름을 끊는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 → (라)이다.

③ X — (다)의 '네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제시되기 전에 (다)가 먼저 나와 지시 대상이 불분명하다. 또한 (라)의 '이 '덤''은 (다)를 바로 이어받아야 하는데 (나)가 두 문단 사이에 끼어 직접 연결이 끊긴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 → (라)이다.

④ X — (다)와 (라)의 '덤' 연결은 맞지만, (다)의 '네 가지 능력'이 앞에서 소개되지 않은 채 글이 시작된다. 또 책 읽기의 결론까지 제시한 뒤 (나)와 (가)의 일반적 논의로 돌아가므로 전개 순서가 뒤집힌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다) → (라)이다.

오답 포인트

(다)와 (라)가 '덤'으로 강하게 이어진다는 사실만 보고 두 문단을 글의 처음에 둘 수 있다. 그러나 붙어 있는 두 문단의 내부 연결뿐 아니라, (다)의 '네 가지 능력'이 앞선 (나)와 (가)를 전제로 한다는 전체 연결까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목록이나 개념을 처음 소개하는 문단을 찾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어가 앞 내용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것’, ‘그 능력’, ‘이 ‘덤’’ 같은 지시어의 구체적 선행 표현을 찾아 문단을 붙이면 전체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네 능력의 제시와 한계 → 한계의 가치 → 책의 역할과 ‘덤’ → ‘이 덤’의 중요성 순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2.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 한다.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는 원리를,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① '나는 남자이다.'와 '나는 남자가 아니다.'는 모순 관계에 있다.
② '어떤 것이든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는 배중률에 해당한다.
③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일 수 없다.'는 무모순율에 해당한다.
④ '지금 덥다.'와 '지금 춥다.'라는 진술 사이의 관계는 반대 관계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를 구별하고, 배중률과 무모순율의 형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모순 관계: 두 진술 가운데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참인 관계이다. 둘 다 참일 수도,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다.
반대 관계: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이다.
배중률: 'p이거나 p가 아니다'처럼 p와 그 부정 사이에 제3의 가능성이 없다는 원리이다.
무모순율: 'p이면서 동시에 p가 아닐 수는 없다'처럼 동일한 진술과 그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원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나는 남자이다.’와 ‘나는 남자가 아니다.’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정확한 부정이다.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므로 모순 관계이다.
② O — ‘어떤 것이든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는 ‘p이거나 p가 아니다’의 형식이므로 배중률에 해당한다.
③ X —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님’처럼 동일한 진술과 그 부정을 함께 말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남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여성이 그 반례가 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일 수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일 수 없다’라고 해야 무모순율에 해당한다.
④ O — ‘지금 덥다.’와 ‘지금 춥다.’는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일 수 있으므로 반대 관계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사람’과 ‘남성이 아닌 것’을 겉보기만 반대되는 표현으로 착각하기 쉽다. 무모순율에서 부정되는 대상은 반드시 같은 진술 p여야 한다. ‘사람’의 부정은 ‘사람이 아님’이지 ‘남성이 아님’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문장이 정확히 p와 ‘p가 아님’의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정확한 긍정과 부정이면 둘 다 참도 둘 다 거짓도 불가능한 모순 관계이고, 동시에 참만 불가능하며 중간 가능성 때문에 둘 다 거짓일 수 있으면 반대 관계이다.

암기 포인트

모순은 ‘하나는 반드시 참’, 반대는 ‘둘 다 거짓 가능’, 무모순율은 ‘p와 p 아님이 동시에 참일 수 없음’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논리와 같은 방식이 사용된 문장은?

< 보기 >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소중하게 다루었소.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되면 소중하게 되돌려 줄 것이오.

① 공부는 등산과는 다른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행위이고 등산은 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②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라는 노랫말은 원숭이와 사과의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③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종 물고기를 들여온 우(憂)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④ 오늘날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대응되는 공통 구조를 근거로 한쪽에 대한 판단을 다른 쪽에도 적용하는 유추의 방식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추는 두 대상이나 상황의 유사한 관계 구조를 바탕으로, 한쪽에서 성립하는 판단이 다른 쪽에서도 성립한다고 보는 논증 방식이다. <보기>는 '넥타이를 빌림-소중히 사용함-돌려줌'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그대를 빌림-아끼고 사랑함-이별할 때 돌려줌'의 관계에 대응시킨다. 단순히 같은 속성을 나열하거나 같은 뜻을 바꾸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부와 등산을 '머리로 하는 행위'와 '몸으로 하는 행위'로 구별하므로, 공통 구조를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유추가 아니라 차이점을 근거로 한 대비이다. '유추의 방식이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두 행위를 대비한 방식이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② X
원숭이의 엉덩이와 사과가 모두 빨갛다는 한 가지 속성을 연결한 연상이다. 한 대상의 관계나 판단을 다른 대상에 옮겨 결론을 이끌어 내지 않으므로 유추 논증이 아니다. '유추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공통 속성인 빨간색을 매개로 말을 이어 간 연상이다'가 올바른 설명이다.

③ O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영어를 들여오는 일과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종 물고기를 들여오는 일은 '기존의 것을 돌보지 않으면서 외부의 것을 들여옴'이라는 관계 구조가 같다. 물고기 사례에 대한 판단을 언어 문제에 적용하므로 <보기>와 같은 유추의 방식이다.

④ X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함'과 '현대 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을 무시함'은 하나의 태도를 서로 반대편에서 풀어 쓴 관계이다. 서로 다른 두 사례의 공통 구조를 근거로 판단을 옮기는 유추가 아니다. '유추의 방식이다'가 아니라 '같은 태도를 동의적으로 바꾸어 진술한 방식이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유사한 점'과 ④의 '마찬가지'라는 표현만 보고 유추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유추에는 단순한 공통 속성이나 같은 뜻의 재진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례 사이의 대응 관계와 판단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두 대상의 요소들이 서로 대응하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한쪽 사례에 대한 평가나 결론을 그 대응 관계에 따라 다른 쪽에 적용했으면 유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추는 '공통점 발견'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대응을 통한 판단의 이동'까지 이루어진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바로 그 목적이 규범적으로 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며, 그의 의지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안 신체적인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주의력을 발휘하여 그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나) 거미도 방직공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며, 꿀벌의 벌집구조는 건축가들의 솜씨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서툰 건축가라 해도 숙련된 꿀벌보다 나은 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벌통 속의 벌집을 만들 경우 미리 자기 머릿속에 그 벌집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의 상상 속에 관념으로 이미 존재한다.

(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팔, 다리, 머리, 손과 같은 자신의 신체 기관을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통해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

(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① (가)-(다)-(라)-(나)　② (가)-(나)-(다)-(라)
③ (다)-(가)-(라)-(나)　④ (다)-(라)-(나)-(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단의 중심 내용이 일반적 설명에서 구체적 설명으로 전개되는 흐름과 지시어·반복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다) — 노동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인간이 자연과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한다.
2. (라) — '그렇게 함으로써'가 (다)의 자연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받아, 인간 노동의 범위를 한정한다.
3. (나) — 거미·꿀벌과 건축가를 비교하여 인간 노동은 결과를 머릿속에 미리 그리는 목적의식적 활동임을 밝힌다.
4. (가) — (나)의 머릿속 관념이 '목적'으로 이어지며, 그 목적이 행동 양식과 의지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왜 이 순서: (라)의 '그렇게 함으로써'는 (다)의 마지막 내용이 전제이고, (가)의 '그 목적'은 (나)에서 제시한 노동 결과의 사전 관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로 시작하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앞에서 제시되지 않으며, (다) 뒤에는 이를 받는 (라)가 와야 한다. 틀린 배열 '(가)-(다)-(라)-(나)'는 '(다)-(라)-(나)-(가)'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가)의 '그 목적'은 (나)의 머릿속 관념을 받아야 하므로 (가)가 (나)보다 먼저 올 수 없다. 또한 (라)는 '그렇게 함으로써'가 가리키는 (다) 바로 뒤에 놓여야 한다. 틀린 배열 '(가)-(나)-(다)-(라)'는 '(다)-(라)-(나)-(가)'로 고쳐야 한다.

③ X — (다) 다음에 (가)를 놓으면 (가)의 '그 목적'에 대응하는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 (다) 다음에는 이를 지시하는 (라)가 오고, 목적의 사전 구상을 설명한 (나) 뒤에 (가)가 와야 한다. 틀린 배열 '(다)-(가)-(라)-(나)'는 '(다)-(라)-(나)-(가)'로 고쳐야 한다.

④ O — (다)가 노동의 일반적 정의를 제시하고, (라)가 그 설명을 받아 인간 노동으로 범위를 좁힌다. 이어 (나)가 인간 노동의 목적의식성을 동물과의 비교로 설명하고, (가)가 그 목적이 행동과 의지를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심화한다.

오답 포인트

(가)도 노동의 목적을 설명하므로 앞에 올 수 있어 보이지만, 첫 문장의 '그 목적'은 선행 내용이 필요한 표현이다. 또한 (라)의 '그렇게 함으로써'를 단순한 접속 표현으로 보면 (다)와 (라)의 강한 결속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시어가 가리키는 선행 내용을 찾아 붙이고, 같은 핵심어가 '정의→범위 한정→구체적 예시→의미 심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로 (다)-(라)를, '머릿속의 관념→그 목적'으로 (나)-(가)를 묶은 뒤 두 문단 묶음의 논리 관계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그렇게'는 앞의 행위를 받고, '그 목적'은 앞의 관념을 받는다: (다)-(라), (나)-(가).

NoteBase

문 15. <보기> ㉠~㉣의 높임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선생님께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어제 그녀가 시립 미술관에 갔었니?
㉢ 네가 친구한테 휴대폰을 가져다주었구나.
㉣ 우리 학교에 가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합시다.

① ㉠에서는 격 조사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② ㉡은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고, 하게체 문장이다.
③ ㉢은 종결 어미에 '요'를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과 격식성 여부가 동일하다.
④ ㉣에 사용된 청유형 종결 어미 '-ㅂ시다'는 격식체 중 하오체 어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의 대상에 따른 주체·객체·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과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비격식체 등급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높임의 뜻을 지닌 조사나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며,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하오체·하게체·해라체가, 비격식체에는 해요체·해체가 있다.
㉠은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쭤보다'로 객체인 '선생님'을 높인다. ㉡의 '갔었니?'와 ㉢의 '가져다주었구나.'는 모두 비격식체인 해체이고, ㉣의 '공부합시다.'는 격식체인 하오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선생님께'에는 높임의 뜻을 지닌 격 조사 '께'가 쓰였고, '여쭤보다'는 '묻다'의 대상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하게체 문장'이다. ㉡의 '갔었니?'는 듣는 이를 낮추어 말하는 표현이지만, 상대 높임법상 하게체가 아니라 비격식체인 해체 문장이다. 올바르게는 '㉡은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고, 해체 문장이다.'이다.
③ O — ㉢의 종결 어미 '-구나'에는 보조사 '요'를 붙일 수 없고, ㉡의 '-니'도 같은 성격을 보인다. ㉡과 ㉢은 모두 비격식체인 해체이므로 격식성 여부가 동일하다.
④ O — ㉣의 청유형 종결 어미 '-ㅂ시다'는 격식체 가운데 하오체에 쓰이는 어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상대를 낮춘다'는 성격만 보고 낮춤의 격식체인 하게체로 판단하게 하는 데 있다. 상대를 낮추는 등급에는 하게체뿐 아니라 해라체와 해체도 있으므로, 실제 종결 표현 '-니'를 보고 해체로 판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누구를 높이는지에 따라 주체·객체·상대 높임을 가르고, 상대 높임은 문장의 종결 표현으로 등급을 판별한다. '-니', '-구나'는 해체, '-ㅂ시다'는 하오체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께·여쭤보다'는 객체 높임, '-니·-구나'는 해체, '-ㅂ시다'는 하오체이다.

NoteBase

문 16. <보기>를 바탕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벤치에 앉은 그녀는 너무 예뻤다.
㉡ 경찰이는 TV에서 만화를 보았다.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 우리도 경전철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① ㉠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이다.
② ㉡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4개이다.
③ ㉢을 보면 문장의 부속 성분인 부사어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④ ㉣에는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가 2개이므로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요구하는 필수 성분을 파악하고,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수적 문장 성분은 서술어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서술어에 따라 주어 외에 목적어나 '에게'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은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형태가 같은 성분이 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중복으로 보아 생략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중심 문장 '그녀는 너무 예뻤다'에서 '예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주어이며, '너무'는 정도를 더하는 부사어로서 생략할 수 있다. '벤치에 앉은'도 '그녀'를 꾸미는 관형절이다. 틀린 표현은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이며, 올바르게는 '주어와 서술어'이다.
② X — ㄴ에서 '보다'는 '누가 무엇을 보다'의 구조를 이루므로 주어 '경찰이는', 목적어 '만화를', 서술어 '보았다'가 필수적이다. 'TV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나 매체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생략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4개'이며,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③ O — ㄷ의 '주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의 구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주어 '할아버지께서', 부사어 '우리들에게', 목적어 '세뱃돈을', 서술어 '주셨다'가 필요하다. 이처럼 부사어도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면 필수적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④ X — ㄹ의 '우리도'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경전철이'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 '경전철이 언제 개통될지'의 주어이다. 두 주어는 서로 다른 절에 속하므로 중복된 주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해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각 절에 필요한 주어이므로 둘 다 쓸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부사어는 모두 부속 성분이므로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③을 놓치기 쉽다. ㄷ의 ‘우리들에게’처럼 서술어 ‘주다’가 상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사어도 필수적이다. 또한 ㄹ의 두 주어는 같은 절에서 반복된 것이 아니라 각각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 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를 찾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에’ 가운데 그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을 확인한다. 이어서 문장 안에 절이 들어 있으면 각 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따로 분석한다.

암기 포인트

필수 성분은 품사가 아니라 서술어의 요구로 결정된다. ‘주다’는 주어·목적어·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고,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은 각각 주어를 가질 수 있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보기 >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또는 관형사 등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 긴 이불을 팔다.	㉡ 한 이불을 덮다.
㉢ 저 이불을 빨다.	㉣ 새 이불을 사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체언을 꾸미는 말의 문장 성분이 모두 관형어이더라도, 그 품사는 관형사와 형용사로 다를 수 있음을 묻는다.

핵심 개념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품사이고, 형용사는 활용하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따라서 관형어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품사가 모두 관형사인 것은 아니다. '긴'은 형용사 '길다'가 활용한 말이고, '한·저·새'는 관형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긴'은 기본형이 '길다'인 형용사이며, 어간 '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이불을 꾸민다. ㉡~㉤의 꾸미는 말은 모두 관형사이므로 품사가 다른 ㉠을 고른 ①이 옳다.

② X — ㉡의 '한'은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며 '이불'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한'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르다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한'은 ㉢의 '저', ㉣의 '새'와 같은 관형사이다.

③ X — ㉢의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며 '이불'을 꾸미는 지시 관형사이다. '저'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르다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저'는 ㉡의 '한', ㉣의 '새'와 같은 관형사이다.

④ X — ㉣의 '새'는 새것임을 나타내며 '이불'을 꾸미는 성상 관형사이다. '새'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르다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새'는 ㉡의 '한', ㉢의 '저'와 같은 관형사이다.

오답 포인트

네 밑줄 친 말이 모두 명사 '이불'을 꾸며 관형어로 기능한다는 점 때문에 품사도 모두 관형사라고 착각하기 쉽다. 특히 '긴'의 '-ㄴ'을 관형사의 일부로 보면 안 되며, '긴'은 형용사 '길다'의 활용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꾸미는 말의 기본형과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본형이 '길다'처럼 활용하면 용언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체언 앞에서만 꾸미면 관형사이다. 문장 성분인 관형어와 품사인 관형사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긴'은 '길다'의 활용형인 형용사이고, '한·저·새'는 관형사이다. 관형어는 문장 성분, 관형사는 품사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단어 중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양쪽 채가 수평이 되도록 들어라.
② 무를 채 쳐서 김치를 담그는 데 썼다.
③ 나는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잠시 어정거렸다.
④ 황제의 손에는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가 같은 '채'가 문맥에 따라 자립 명사, 의존명사, 부사로 쓰이는 양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명사는 명사이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의 관형어에 기대어 쓰이는 말이다. '진 채'의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뜻이며, 관형형 '진'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다. 반면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채'는 자립 명사이고, 부정 표현 앞에서 '아직' 또는 '미처'의 뜻을 더하는 '채'는 부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양쪽 채가 수평이 되도록'의 '채'는 저울의 부분인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자립 명사이다. '채'를 의존명사라고 본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자립 명사이다.
② X — '무를 채 쳐서'의 '채'는 무를 가늘고 길게 썬 것을 뜻하는 자립 명사이다. '채'를 의존명사라고 본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자립 명사이다.
③ O — '진 채'의 '채'는 '뒷짐을 진 상태 그대로'라는 뜻이다. 앞의 관형형 '진'의 수식을 받아야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명사이다.
④ X — '채 마르지 않은'의 '채'는 뒤의 부정 표현 '마르지 않은'과 호응하여 '아직 다 마르지 않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부사이다. '채'를 의존명사라고 본 것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부사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같은 형태의 '채'가 제시되어 있어 글자 모양만으로 품사를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④의 '채'는 ③과 모양이 같지만, '채 + 부정 표현'의 구조에서 '아직·미처'의 뜻을 더하므로 의존명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 앞에 용언의 관형형이 있고 '그 상태 그대로'로 풀이되면 의존명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썬 재료를 가리키면 자립 명사이고, 뒤의 '않다·못하다'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해 '아직·미처'로 풀이되면 부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 채'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채 마르지 않다'는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에 테를 매다.
② 이번 일로 근심이 많을 것이라 사료된다.
③ 젊은 부부는 사글세로 방을 얻어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④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닥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형태가 비슷한 단어의 정확한 뜻과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매다'는 끈이나 줄의 두 끝을 묶거나 고정한다는 뜻이고, '메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메우다'의 준말로서 빈 곳을 채우고 통 따위에 테를 끼운다는 뜻이다. '사료되다'는 깊이 생각하여 헤아린 결과 그렇게 여겨진다는 뜻이고, '신혼'은 갓 결혼한 상태이며, '부닥치다'는 사람이나 사물과 세게 맞닿는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통에 테를 매다'의 '매다'가 잘못되었다. 통과 같은 둥근 물체에 테를 끼운다는 뜻에서는 '메우다'의 준말인 '메다'를 쓰므로 '통에 테를 메다'가 올바르다.
② O — '사료되다'는 깊이 생각하여 헤아린 결과 그렇게 여겨진다는 뜻이다. 이번 일로 근심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문맥에 알맞다.
③ O — '신혼'은 갓 결혼한 상태를 뜻한다. 젊은 부부가 방을 얻어 갓 결혼한 생활을 시작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 '부닥치다'는 사람이나 사물과 세게 맞닿는다는 뜻이다.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과 맞부딪는 상황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테'가 물체를 묶는 띠처럼 보여 '매다'를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맥은 끈의 끝을 묶는 행위가 아니라 통에 테를 끼워 빈틈없이 맞추는 행위이므로 '메다'를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끈·줄의 끝을 묶거나 고정하면 '매다', 어깨에 걸치거나 통에 테를 끼우는 뜻이면 '메다'로 구별한다. 나머지 단어도 문장 속 대상과 실제 행위가 사전적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끈은 매고, 가방은 메고, 통에는 테를 멘다.

NoteBase

문 20. 맞춤법에 맞는 어휘로 짝지어진 것은?

① 넝쿨, 넷째, 녹슨, 녹이다, 꼰지르다
② 눈썹, 눌어붙다, 늘그막, 늴리리, 물크러지다
③ 나지막하다, 난쟁이, 냄비, 너희들, 콧망울
④ 담배꽁초, 더욱이, 덮이다, 도저히, 짭잘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비슷하거나 받침·된소리를 빠뜨리기 쉬운 어휘의 정확한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휘의 바른 표기는 익숙한 발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표준어로 정해진 낱말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문항의 핵심 대비는 끈지르다→끊지르다, 콧망울→콧방울, 짭잘하다→짭짤하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넝쿨, 넷째, 녹슨, 녹이다는 바른 표기이지만, '끈지르다'가 틀렸다. '끊어 버리다'라는 뜻의 표준어이므로 '끊지르다'로 고쳐 쓴다.

② O
눈썹, 눌어붙다, 늘그막, 늴리리, 뭉그러지다는 모두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특히 '눌러붙다'나 '닐리리'로 잘못 적기 쉬우나, 제시된 '눌어붙다'와 '늴리리'가 바른 형태이다.

③ X
나지막하다, 난쟁이, 냄비, 너희들은 바른 표기이지만, '콧망울'이 틀렸다. 코끝 양쪽에 둥글게 내민 부분은 '콧방울'이므로 '콧망울'을 '콧방울'로 고쳐 쓴다.

④ X
담배꽁초, 더욱이, 덮이다, 도저히는 바른 표기이지만, '짭잘하다'가 틀렸다. 맛이 조금 짜다는 뜻의 표준어는 둘째 음절도 된소리로 적은 '짭짤하다'이므로 이를 '짭짤하다'로 고쳐 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끈지르다'는 받침을 빠뜨리기 쉽고, ③의 '콧망울'은 '꽃망울'과 형태를 혼동하기 쉬우며, ④의 '짭잘하다'는 둘째 음절의 된소리를 빠뜨리기 쉽다. 한 어휘만 익숙해 보여도 그 선지의 나머지 어휘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어휘를 하나씩 표준형과 대조하고, 받침이 탈락한 형태, 비슷한 다른 낱말이 섞인 형태,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은 형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 단어라도 틀리면 그 선지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끊지르다는 ㄶ, 콧방울은 방울, 짭짤하다는 두 번 모두 짜게 적는다.

NoteBase